제20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The 20th Korea China Japan Registered Architects Organizations Meeting

'제20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가 2017년 11월 1일(수)부터 11월 4일(토)까지 4일간 대구광역시에서 개최돼 한국, 중국, 일본 건축사단체 대표단이 모여 건축계 주요현안을 토의하고 관련 정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제20회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대한건축사협회(이하 사협)가 주최, 대구광역시건축사회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11월 1일, 제20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첫 날 조충기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미이쇼 기요노리 일본건축사회연합회 회장, 그리고 유양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부회장과 3개국 대표단 11명 등 총 14명이 한중일 회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조충기 사협 회장은 '건축사의 사회적 역할'이란 주제로 우리나라 건축사 관련 제도와 시장을 소개했다.

둘째날 오전에는 대구의 역사와 북성로의 생성과정 및 변천사에 관련된 강의를 듣고, 현장에서 한국, 중국, 일본 세 팀으로 나누어서 2시간가량 현장답사를 했다. 오후에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대구, 도시회복에 대하여'를 주제로 정하고 대구의 구시가지인 북성로 주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3일은 도시회복을 통한 3국의 미래도시 비전'이란 주제로 진행된 첫번째 발표와 올해 다시 구성된 '젊은 건축사들의 프로젝트 발표'가 시민들도 참여 가능한 오픈세션으로 마련됐다. 2017 대한민국 신진건축사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한 전보림(주.아이디알건축사사무소) 건축사가 '매곡도서관' 설계과정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건축탐방으로 대구시의 국가지정문화재 '양동마을'을 둘러봤다.

특히 올해는 2017 대구건축비엔날레 연계행사로 진행돼 3국 건축사단체 대표단들이 개막식에도 참가했다.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유 양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이런 의미 있는 행사들이 건축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기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내년 하반기 중에 일본 오사카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중일건축사협의회는 건축분야 교류협력 추진을 위해 사협과 중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NABAR),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로 구성된 한·중·일 건축사단체 회의로, 1997년 상호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매년 3국이 순환 개최하며 건축계 주요 현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1. 제20차 한중일건축사협의회 참석자 기념촬영
2. 11월 1일 '건축사의 역할, 책임과 실무관리'를 주제로 열린 회장단 회의
3. 대구건축비엔날레 개막식에 참가한 한·중·일 건축사단체 대표단
4. 11월 3일 건축탐방으로 진행된 '양동마을 투어'